



- '22. 04. 25.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건의
- '22. 05. 10. 환경부 개정건의 배경 · 내용 등 설명 및 물 재이용사업 관련 자료 제공
- '22. 08. 30. 환경부 적극행정심의회 안건 상정
- ~09. 02. - (심의결과)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선제적 조정을 위해 '법령 개정 전 시행' 결정

## 개선효과



-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측면
  - (산업지원) 기업체 용수공급 지원을 통한 산업 혁신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
  - (재이용율 제고) 현재 경기도 하수 재이용율 17.1%(전국7위) 상승
  - (물 여유량 확보) 기존 수원 대체를 통한 물 수요관리에 기여
  - (생활환경 개선) 악취개선 및 주민후생 개선 등 친수환경 제공
  - (기후변화 적응) 이수안전도 제고, 상시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구축
  - (물산업 발전) 고부가가치 물시장 육성 및 해외진출, 기술 고도화 촉진
  - (지역경제 활성화) 지속가능한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\* 기대
- 지자체(시 · 군)의 기대효과
  - (지역개발 촉진) 수질오염총량 감소\*, 지자체의 개발수요 증대 가능
    - \* 경기도 하수처리장 보급(95.1%)을 고려시, 재이용은 최선의 오염부하량 삭감 대안
  - (재정 인센티브) 물재이용 목표 달성 시, 인센티브(국고보조) 기대
  - (재이용 수익창출) 사업 및 참여 방식에 따라, 수입원 창출\* 가능
    - \* 하수원수 요금 징수(편당 직접 참여), 초과수익(BTO-a) 일부 할당 등
- 기업체의 기대효과
  - (ESG경영 실천)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업가치 충족, 제품판매 기여
  - (물이용부담금 절감) 팔당댐 원수에 부과 중인 170원/㎥을 절약 가능
  - (물 안전 강화) 기후변화, 물문제 등으로부터 안전한 다중 공급원 확보

# 04 “수십년 안보 위한 희생”... 규제합리화로 토지소유자 권리 회복

추진부서 경기도 하천과 ☎ 031-8030-3662

## 개선배경



- 수원에 위치한 서호천은 하천 중심으로 좌측에 군부대(공군 제10전투비행단)가 위치하고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하천폭 확장이 어려우니 그 반대편 사유지로 획일적으로 확장하여 서호천 하천구역 870,027㎡가 설정되어 있었음.
- 「하천법」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하천구역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, 예외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위 가능

[피해사례]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사유지에서는 건축, 개발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하천관리에 지장 없는 범위 내의 공작물, 수목식재 등 제한적 행위만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.

※ 관련규정 「하천법」 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

❖ 잠정제방을 도입하여 사유지 95필지 28,608㎡ 하천구역 제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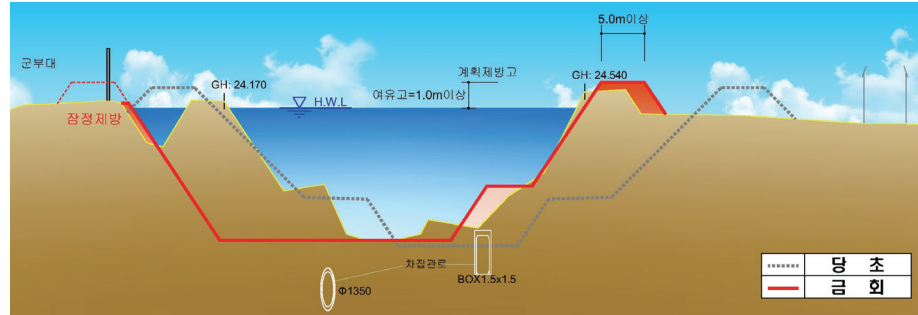
## 개선내용



개선 전	개선 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2014년 9월 서호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제방부지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토지 870,027㎡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고 사유지에 대하여는 건축 및 개발행위 등 토지소유자 권리 제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군부대 구간 잠정제방 도입으로 하천구역에서 제척된 사유지 95필지 28,608㎡에 대하여 건축 및 개발행위 등 토지소유자 권리 행사 가능</li> </ul>

- “잠정제방”은 지역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단계적 제방을 설치하는 방법으로써 완벽히 홍수를 방어하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 도입한 사례가 없었으나, 군부대의 장래 이전 계획과 사유지의 과도한 규제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그룹의 기술적 검토 절차를 거쳐 도입하였음.

[ 잠정제방 도입 전후 비교 도면 ]



- '14. 09. 30. 서호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구역 결정
- '19. 05. 30. 서호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
- '19. 09. 26. 주민설명회(주민건의사항 : 사유지 편입 최소화 요청)
- '21. 07. 01. 군부대 협의 지연에 따른 잠정제방 검토
- '21. 12. 01.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
  - ※ 과도한 사유지 편입으로 주민 불편 등 치수안전도에 대한 형평성을 제기하여 군부대 구간 잠정제방 도입에 대하여 “원안 의결” 심의 완료
- '21. 12. 22.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 변경 고시(경기도고시제2021-5215호)

## 개선효과



- 하천구역의 제척(사유지 95필지 28,608㎡)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 실현
  - ※ 규제해소에 따른 지가 상승, 기존 공장 증설, 신규 개발 및 건축 행위 등 가능
- 서호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시 민원 최소화 및 사업 면적 축소에 따른 예산(232억원) 절감
  - － 보상비 축소에 따른 총사업비 감소로 서호천 정비사업의 조기 완료 가능

# 05 홍수방어 패러다임 전환으로 하천 규제 개선

추진부서 경기도 하천과 ☎ 031-8030-3662

## 개선배경



- 2014년 수립된 원천리천 하천기본계획은 홍수방어를 위한 설계홍수량을 바탕으로 계획홍수위를 산정하고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홍수에 취약한 곳에 제방 계획 수립 후 하천구역을 결정하고 행위제한 등 사권행사를 제한하고 있음.
  - ※ 원천리천 하천구역 사유지 편입 현황 : 319필지 98,510㎡
- 국지성 호우 및 도시화에 따른 설계홍수량이 약 30% 증가되어 추가적인 홍수방어계획이 필요하나 하천 주변 주거지 및 삼성전자 단지가 위치하고 8차선 도로가 인접하여 계획홍수위를 반영한 교량 및 축제고 인상시 추가 사유지 편입 발생

**[피해사례]**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사유지에서는 건축, 개발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하천관리에 지장 없는 범위 내의 공작물, 수목식재 등 제한적 행위만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.

※ 관련규정 「하천법」 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

❖ 홍수방어 패러다임 전환으로 사유지 133필지 17,063㎡ 하천구역 제척

## 개선내용



### 개선 전

- 홍수방어를 위하여 제방축조나 하도정비를 시행하는 선개념의 치수계획으로 계획제방부지(사유지 포함)에 대하여 하천구역을 결정
  - ※ 사유지 하천구역 : 319필지(98,510㎡)
- 홍수시 유수소통에 방해되는 교량 9개소 재가설
  - ※ 삼성교의 경우 2.77m 도로인상 필요



### 개선 후

- 원천리천 상류에 위치한 신대·원천저수지의 홍수조절량(1,326천톤)을 확보하는 2차원적인 면개념의 유역중심 홍수방어계획 도입으로 기존 하천시설물의 치수능력 증대를 통한 사유지 규제 해소
  - ※ 사유지 133필지(17,063㎡) 하천구역 제척
- 교량 재가설 9개소중 5개소 존치
  - ※ 삼성교 교량상승고 (2.77m→0.62m) 감소